

K7NG *Kenny*



케니 달글리시는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으로, 선수이자 감독으로 리버풀 풋볼 클럽에 기여한 큰 공로를 인정받아 전 세계 축구팬들로부터 ‘킹’이라는 별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킹 케니’라는 제목의 이 멋진 어린이 동화는 축구 전설 케니 달글리시가 축구를 통해 얻은 인생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리더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길을 닦아주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SC제일은행의 모그룹 스탠다드차타드는 리버풀FC의 공식후원사로 ‘킹 케니’를 자랑스럽게 출판함으로써, 리버풀의 전설로서 케니가 남기는 유산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SC제일은행 또한 고객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두가 저를 ‘킹 케니’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조용하게, 항상 올바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케니 달글리시



Written by: Gavin McCormack
Illustrated by: Evan Raditya Pratomo

© Copyright Kenny Dalglish (2018)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케니 달글리시의 이야기를 들려 줄게요.

케니 달글리시의 위대한 여정은

1951년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축구를 향한 케니의 열정은 처음엔 골키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재능을 발견하기 전이었지요.

골피퍼였던 그가 장갑을 벗어 던지고 필드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케니의 미래가 결정되었습니다.

케니는 언제나 아빠와 함께 축구를 했고

또 항상 축구공을 끼고 살았습니다

케니와 아빠는 집 앞마당

그리고 거리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아빠 “빌”은 킹 케니의 영웅이자 멘토였고 스승이었습니다.

케니를 지켜보는 아빠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빠와 함께 찾았던 아이브록스 경기장에서
스코틀랜드 레인저스를 향해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아빠와 함께 전술에 대해 그리고 리그 우승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는 케니에게 희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케니는 친구들과 함께 야외훈련을 받았습니다.
케니를 지켜보던 아빠는 말했지요,
너는 키가 크지 않으니 공을 낮게 드리블 하거라.
자세를 낮추고 공에서 눈을 떼지 말아라.”





케니는 아빠의 말대로 매일 매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케니가 축구를 할 때면 케니의 아버지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함께 달려가 든든하게 지켜봤습니다

아빠는 말했습니다, “케니, 너는 정말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단다.

언제나 어디서나 널 응원할 것이란다. 약속하마.”



“너의 경기를 볼 때마다 아빠는 자랑스럽단다.

경기장에서 고개를 돌려 보렴.

언제나 관중 속에서 아빠는 널 향해 미소 짓고 있을 거란다”

아빠의 말을 떠올릴 때면 케니에게 행복감과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케니에게나 아빠에게나 가족은 소중했습니다.



조금씩 자라난 케니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버풀FC의 미드필더나 윙을 맡는 프로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케니를 선수로 원했던 리버풀FC 입단을 시도했으나,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케니는 입단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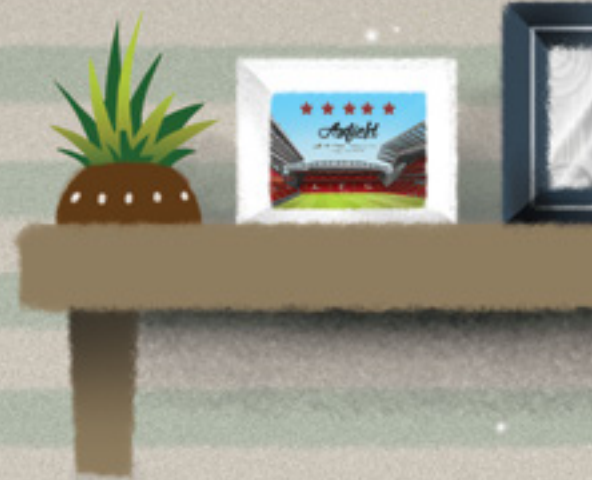
슬픈 마음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케니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케니를 뿌듯해 하시는 아빠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케니야, 잘 들어라.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단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셀틱의 셀 팰런이 널 만나고 싶어 한다더구나.

네가 공을 다루는 데 천재적이라고 하더구나.

가서 축구화, 보호대 그리고 축구공을 챙겨 나와라.

그리고 방에 걸려있는 리버풀 포스터들은 일단 내려 두거라.”

얼마 후 케니의 눈 앞에 놓인 입단 계약서,
하지만 케니의 가슴 깊은 곳에는 못다 이룬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고 안필드를 누비며
관중들의 응원가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셀틱 선수로 셀틱의 승리를 위해 뛰는 것이었습니다.



조국 스코틀랜드의 부름을 받고, 케니는 출발했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조국을 위해 뛰어야 했던 것입니다.
1971년 국가대표로 벨기에를 첫 상대로 케니는 뛰었고,
첫 무대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대표로서 최고 중의 최고임을 보여준 케니 달글리시,

그의 실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및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케니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골을 터뜨리며, 국가대표선수로 총30골을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열린 마음으로 가득했던 케니 달글리시는
영원히 함께 할 아름다운 신부를 만났습니다.
상냥하고 겸손한 성품의 마리나라는 여성을 만난 것입니다.
결혼 후 4명의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경기마다 골을 넣어 골100개를 기록하자
리버풀FC에서 영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아빠는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케니, 제안 내용이 꽤 좋더구나”





“하지만 너 자신이나 리버풀 또는 나를 위한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명예와 네가 남길 유산이란다.”

미들즈브러와의 리그 첫 경기에서 뛰었던 케니는
출전 후 불과 7분 만에, ‘킹 케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케니는 수백골을 기록하며 수많은 우승컵과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팬들은 케니가 공을 찰 때마다 케니의 이름을 외치며 열광했고,

케니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가 어린 축구 팬들의 방안 벽면을 장식했습니다.

안필드는 케니에게 집과 같은 곳이었으며, 매 경기를 열정을 다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요하게 여긴 건 돈이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수, 미드필더, 윙어 등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리버풀의 등번호 7번을 달고 어떠한 역할도 소화해 냈던 것입니다.





리버풀의 수많은 경기가 펼쳐졌고
이기든 지든, 케니의 열정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트로피와 메달, 수상기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케니는 보여지는 기록보다 더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올해 가장 빛나는 선수를 뽑는 시상식에서
케니의 득표수는 압도적이었고, 어느 선수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케니는 정말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서 영원히 빛날 이름이 된 것입니다.



- THE PFA -
Awards 1983

그러던 1984년의 어느 평화로운 아침,
알 수 없는 편지 한 통을 문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케니는 편지의 발신인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케니 달글리시 선수를

왕궁에서 있을 연말행사에 초대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자 리더이며 국가보물입니다.

당신의 업적을 치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케니는 구름위를 날아다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바지와 신발, 속옷까지 새로 사 입고

왕궁에서 여왕을 만났고,

여왕은 킹 케니에게 대영제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케니에게서 타고난 지도자역량을 발견한 리버풀은

34세의 케니에게 감독직을 맡겼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선수들을 잘 끌어주고

케니가 수장으로 있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FA컵 결승전을 앞에 두고 케니는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 잘 들어. 우리는 모두 꿈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께서 항상 그러셨지.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자, 경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자. 그 차이를 볼 수 있을 거야.”



“중요한건 돈이나 명성이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 하나 하나가 경기를 뛰는 매 순간의 마음가짐이지.

겸손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대하고,

나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 붙이는 자세로 임해야 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야.”



22년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했던 케니는
축구화를 벗고, 선수로서의 은퇴를 할 때를 맞았습니다.

500회가 넘는 경기 출전, 200개의 골 득점.
케니는 경기장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7



케니는 더 이상 선수로 뛰지는 않았지만,
매일 매일 케니는 선수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후배들에게 축구 스킬을 전수하였고,
훈련시간에 나타나 선수들의 다양한 훈련에 함께 했습니다.



케니에게 선수들은 형제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지요.

케니는 아내인 마리나와 자선기금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암환자를 위한 모금으로, 사람들은 이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THE MARINA DALGLISH APPEAL





이제 케니는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입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한 자부심 또한 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난 여러분도 동의할 것 같은데요,
킹 케니는 진정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Kenny Dalglish

대영제국 훈작사인 케네스 매티슨 달글리시는 1951년 3월4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태어나, 리버풀FC에서 선수와 감독을 지내면서 길이 간직될 훌륭한 성과들을 남겼습니다.

감독으로서 성공적으로 두 시즌을 보내기 전, 케니 달글리시는 515회 경기에 출전하여 172개 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리그 우승 8회, 유러피안컵 우승3회, FA컵 우승 2회, 리그컵 우승 5회, UEFA 슈퍼컵 우승 1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케니 달글리시는 스코틀랜드와 영국, 두 국가의 축구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케니 달글리시는 경기장 밖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힐스버러 참사를 겪은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금을 후원했는가 하면, 그 후에도 리버풀 팬들은 물론 머지사이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의 헌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에 대한 케니 달글리시의 배려는 그가 부인과 함께 창립한 자선단체 ‘마리나 달글리시 어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본 단체를 통해 머지사이드 지역의 암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케니 달글리시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뛰어난 축구실력으로 귀감이 된 전설적 존재로, 경기장 안팎으로 그가 보여준 모범적인 삶을 통해 그에게 킹 케니라는 호칭이 부여된 것입니다.



케니 달글리시를 만나보세요 – 전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축구선수 중 한 명인 케니 달글리시는 스코틀랜드 태생으로 프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멋지게 이루어냅니다. 투지와 지독한 성실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응원을 통해 케니 달글리시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내고, 축구계에서 멋진 성과들을 실현했고 후대에 길이 전해질 진정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조국과 소속팀에 선사한 수백 골의 득점으로 케니 달글리시는 가장 사랑받는 선수가 되었고 그 유명한 ‘킹 케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